

食水汚染問題 드디어 政治問題化

盧大統領指示, 法令정비·長短期대책수립토록

現在 못먹을 狀況아니나 放置뎌 큰일...

— 國會서 政府답변 —

編輯者註: 지난 7월25일경부터 10일간 湖南地方을 때린 豪雨와 그뒤에 불어 닥친 颱風주디號의 내습에 의한 慶南·全南지방의 農土·道路·港灣과 손, 家屋流失피해는 7月中의 統計만봐도 人命 164명(실종포함)에 재산피해액 2,593億원에 달하고 있다.(中央災害對策本部集計) 매스컴은 一齊히 水災의 연금품 모집의 社告와 記事를 신고 同胞愛발휘를 호소하면서 8月초순에 접어들자 전국의 신문·방송·TV는 洪水피해기사와 연달아 8日字 朝鮮日報1面톱 「下水하루 240만톤江에 방류·5개直轄市 處理시설 不足...河川汚染·건설부국회자료」 記事를 효시로 5大江이 썩어감에 따른 食水非常을 一齊히 大書特筆하기 시작했다. 漢江등의 重金屬汚染警告 學界發表를 引用보도한것은 4共和國의 末期였고 한때 文教部가 學界發表에 制動을 걸어 食水汚染문제發表는 위축되어 焦點을 잃고 죽은 魚類寫眞과 거품이 떠내려가는 말초적인 現況報道에 그쳤고 原因分析등 深層報道는 研究機關의 公式發表에 依存할 方法밖에 없어 「알듯모를듯」하는 線에서 방황했었다. 8月초순부터 20日동안은 河川汚染에 따른 오늘의 食水문제가 最大의 이슈로 紙面을 덮었고 반드시 改善돼야 할 重大事이기에 記錄해둔다.

〈紙面上 서울日刊紙 中心·放送TV는 省略〉 〈浪〉

▲ 下水하루 240만톤 江에 방류(8.8. 朝鮮日報1面톱) ▲ 사실로 드러난 「꺼림칙한 수돗물」 首都圈지역 질소오염기준치 10倍·保社·환경청조사실태와 문제점(8.9. 東亞日報5面톱·해설) ▲ 방치된 下水에 上水道무방비·大都市처리시설부족...26%만 淨化(8.9. 朝鮮日報3面기획物) ▲ 수돗물淨水場17% 食水부적·重

金屬, 洗劑세균기준초과(8.9. 東亞日報14面톱) ▲ 마실물이 없다면(8.9. 同上社說) ▲ 마실만한 수돗물을...(8.10. 서울신문社說) ▲ 盧大統領주제 水質대책회의·下水처리장84곳건설·96년까지 楊平등 2兆757億投入, 八堂·大清담주변 특별보호(8.10. 每日經濟1面톱) ▲ 수돗물汚染충격과(同日同紙記者24時 칼럼) ▲ “수돗물오염” 生水·정수기불티·느닷없는 政府발표 경악·無許업체수두룩水質관리시급(8.10. 每日經濟톱) ▲ 忠州湖水中座台철거(同日同紙4段) ▲ 수돗물汚染비상·못먹을 上水源自淨능력상실(8.10. 서울신문5面 現場실태와 문제點 特輯) ▲ 廢水불법방류철거規制·環境保護기구설치·盧大統領지시 法令정비·長短期대책수립(8.10. 國民日報1面미들·3段) ▲ 물오염은 生命의 禍과다(同日同紙社說) ▲ 下水를 대충걸러마시다니... 차일피일 미루다 “비상”·“물”도 못민겠다(8.10. 中央日報 全面特輯) ▲ 洛東江은 거대한 “廢水溝”·上流부터 “重病”...중금속汚染度33배나·〈긴급보고 公害山河①〉 琴湖江엔 물고기 없어진지 오래 이타이 이타이 病因가드름 0.013PPM이나 검출·水質관리一元化촉구·國會保社委汚染실태조사(8.11. 國民日報1面 特輯) ▲ 京畿에 工團11곳조성·96년까지 松炭·平澤등 360만평 수도권公害관련업종유치·牙山등 8곳엔 專門단지(8.11. 每日經濟1面톱·同日字 記者24時 칼럼 環境廳의 無氣力) ▲ 쓰레기 발생原因제공자에 收去費부담발생·정부방침에 酒類음료업체 강한반발·건설부, 入場料수입은 턱없이 不足(8.13. 韓國經濟15面5段) ▲ 食水源7개댐 보호구역서 除外 4곳은 都市·觀光휴양지역지정·청평·춘천·충주등 水質보호에 큰 虛點(8.12. 中央日報4段) ▲ “물汚染 심각한 상태아니다” 맑은물 마시려면 水道料더내야...建設部水道局長 朴鏞承씨 인터뷰記事·同日字同紙) ▲ 폐수

…惡臭…“곳곳이 시궁창” 고기비늘도 시커멓게…「4천만의 젓줄」5大江이 죽어간다<漢江> <洛東江> <榮山江> <蟾津江> <錦江>(同日字 同紙 企劃物) ▲漢江은 하루 1천만톤 페수로 “重態”·「검은물」에 重金屬까지 덮쳐 “致命的”(8.12. 中央日報1面7段) ▲서울大氣이 산화질소汚染·서울大팀조사 地上20m까지 기준치초과·“고층건물門열어놓아도 호흡기질환우려” 生水市販고려안해…金保社장관박혀·저질食水공급기관장등 문책·金內務장관(8.12. 中央日報15面6段·1段·2段) ▲環境정책기본법 정기國會제출·保社委政府답변…생수市販은 계속 不許方針. 環境保護국민캠페인 促求(8.12. 서울신문1面 미들) ▲淨水場물 19%식수로 不適·釜山·水原선 납成分기준치 6배검출·建設部一齊水質검사결과(同日字 同紙1面橫4段) ▲公害업체담당자 集團이주·水質오염막게 地域別專門단지(8.12. 韓國經濟) ▲<保社委 議政중계> 各界代表참여 水質오염조사機構설치·水質검사결과 왜 늦게 발표했나……環境稅 신설制度化용의는 (8.12. 서울신문3面 13×34cm박스) ▲“폐수放出업체制裁강화하라” 保社委 汚染실태 발표지연與否등 추궁·“서울4곳淨水場 재검사…食水가능결론” 金保社(8.12. 한국일보1面툽) ▲食水비상…淨水器공인規格연내 制定한다. 國內판매40種…性能아직 미지수·輸入品도 필터만 빼고 거의 國産(8.12. 서울신문 5段) ▲“물이죽어가면 生命은”…신랄추궁. 또다른 「물난리」…왜 방치했나<保社委질의 답변> 96년까지 4兆투자제원조달方法은 <질문> “현재 못먹을 상황아니나 放置뎌큰일”<답변> (8.12. 한국일보 橫7段) ▲환경정책기본법 제정·단속공무원에 司法權부여<환경청장 保社委답변> (8.12. 中央日報3단) ▲八堂등등 납汚染심각·합성세제기준치 11배넘는 정수장도. 建設技術研10개 정수장 수질검사(8.12. 內外經濟4段) ▲生水시관허용고려·當局태도 시민분통(同日字同紙2단) ▲環境汚染피해보상法추진·保社委 수도물食水가능…生水시관불허(8.12. 國民日報橫4段) ▲환경과피의法華經(8.12. 서울신문 퓌들칼럼) ▲물도 사먹어야

하나(8.12. 每日經濟·記者24時칼럼) ▲수돗물 못마실수준 아니다·<議政안테나> 保社委질의답변 ▲<환경汚染터이상 放置할수 없다>② 횃집·축사下水등 공장 八堂수원지로·소양호 양어장 魚類배설물흘러들어…행락객 설거지도 “主犯”(8.12. 朝鮮日報企劃物) ▲市郡서 분노그대로 放流·전국처리장33곳…河川오염극심·豫算타령만…시설도 감독안해·사천·창녕은 農地에 내다버려·廢水방류 44명구속·510개業體 조업정지命令(同日同紙15面툽과 4段) ▲<深層추적> 水質汚染 “根源추방”이 급하다. 더럽힌 뒤 淨水器쓰면 뭘하나. 「맑고 깨끗한 물」은 국민모두의 責任·오염된 淨化豫防비용 수십倍손해(8.12. 한국일보企劃物) ▲全國의 河川이 썩어간다. 全國서 하루廢水1천5백만톤 放流·羅州地域上水 「3급農工用水」로 전락(8.12. 서울신문5面 全面特輯<重病의 上水源…그 實態와 改善策>) ▲山林훼손등 불법행위 2천여건 적발하고도 못본채…漢水以北지역(8.10. 中央日報4단) ▲環境汚染 큰일났다⑤ 합성洗劑거품 河川죽인다(8.17. 東亞日報14面) ▲下流取水源蠶室上流이전·전국12개소 下水처리장신설·全國12개소 下水처리장신설(同日字同紙15面4段) ▲山林行政강화(同日字 同紙 社說) ▲産業폐수배출87%가 大企業·환경청조사 112개업체 하루5百萬톤(同日字 同紙1面미들) ▲노량진·선유·영등포 取水源, 漢江上流로 移轉추진·현재 水質위험수위접근<總理주제 맑은물 공급대책회의>(8.17. 中央日報1面툽) ▲전국山林酸性비汚染·서울·蔚山지역酸度 최고7.5·江原地方도 7.7로 나타나(8.23. 中央日報4段) ▲가두리양식장 이전命令·수질오염 막으려 大清댐부터 조치(8.24. 스포츠서울2단) ▲그린벨트 훼손532명 告發 사회지도층人士 4명 拘束·건설부, 지난7월이후 2,800여件적발(8.28. 中央日報1面미들) ▲智異山·大岩山일대 生態系보존 區域지정, 10월부터 野生動植物포획·채취全面금지<환경청발표> ▲4大江水質 여전히 오염·장마불구 기준치초과<환경청 발표>